

##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본문: 요한복음 6:22-29

본문에서 우리의 초점은 27절의 말씀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본문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해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살펴 보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I.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생활비를 벌어서 그것으로 빵을 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직업을 버리라. 일을 그만 두라”이런 의미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전체가 일의 존엄성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4:28에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10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고 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께서 직업을 버리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돈을 벌어서 그걸로 빵을 사서 집으로 가져 오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 하실 때, 생활비를 벌어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양식을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 II.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2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은 세가지로 이해 할 수 있다. 첫째는 표적을 보아야 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인자위에 인을 치셨다는 것을 알아야하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보낸신자를 믿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알아야 한다.

**첫째 표적을 보아야 한다.**

보리 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 주시고자 하

는 진정한 표적인 무엇인가? 표적이라는 목표점을 볼 수 있도록 가르키는 표시이다. 예수님이 5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 주고자 하는 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은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가리키는 표징이었다.

■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 4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예수님은 5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 주시고자 하신 것은 그들의 배고픈 육신의 필요만을 만족 시켜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 되는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을 보여 주시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기적이 가져오는 열매를 구하기 보다 기적을 행하신 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진정한 보물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산물로서의 떡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그분 자신인 것이다. 진정한 영적인 양식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 것이다.

**둘째, “그 위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인치셨다.”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명을 주는 자로 도장을 찍었다는 뜻이다. 신성한 권위의 표를 주셨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5:19-27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아버지가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은 그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삼아 그가 원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이다. 하나님이 인치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28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29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은 생명의 떡, 무한히 가치 있고, 무한히 아름답고, 만족스럽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양식,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 너희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를 당신의 보물로 만들 수 없다. 너희는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그를 영원한 양식을 주는 분으로 알고 믿고 맛보고 또 맛보아야 한다. 먹는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깊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생명의 떡으로서 깊은 관계를 가질 때 바로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 것이다.

**Ⅲ.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제공하는 하늘로부터 오신 빵이라는 것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너희의 일하는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즉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죽은 후에까지도 영원히 즐겁게 살 것이다.

두 번째로, 새로운 보물이 너희 마음에 주어질 것이다. 돈이나 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백만 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주어질 것이다. 생명의 떡은 마음의 보물이다. 이 보물의 가치를 알고 그 보물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가장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금수저 혹은 수저를 논한 것은 세속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돈 많은 가정에서 난 것이 금수저가 아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떤 금수저보다 더 복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1971년 가을 당시 우석의대(지금은 고대 의대가 됨)학생의 소개를 받아 한양의대 유태영이라는 형제를 알게 되었다. 그 형제를 중심으로 요한복음 공부를 시작했다. 얼마 안 되어 한양대 법대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시반 학생들과 요한 공부를 했다. 당시 한양 대학교는 소위 일류 학교가 아니었다. 많은 학생들이 별로 기를 펴지 못하고 학교를 다녔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기도하기를 한양 대학교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보다 더 좋은 대학이 되도록 기도했다. 미국 하바드나 예일대학보다 더 좋은 학교가 되도록 기도했다. 만약 예수님을 우리의 참 보물로 받아 드리고 산다면 너희들은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요 한양 대학도 그런 유명한 대학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졸업하게 될 때는 명문대 출신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우리 성경공부 그룹에서 한양대학 최초의 사시 합격자, 행시 합격자가 나왔다. 지금은 한양대학교가 한국의 명문대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한양 대학교 기독교수회에서 나를 추천하여 한양 대학교 겸임 교수로서 교양과목으로 매 학기 2과목을 가르치도록 맡겨 주었다. 나는 한 과목은 4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쳤고 한 과목은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와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쳤다. 매학기 400명의 학생들이 내 강의를 들었다. 13년 반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는지 모른다. 이와 같은 기억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그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을 보여 주신다는 것이다.

내가 1979년에 한양 대 앞 왕십리에 온마음교회를 개척했다. 당시 왕십리는 살기에 불편한 점이 많은 동네이었다. 그래서 교화 나온 성도들의 로망은 이 동네를 떠나 강건너 강남으로 이사가고자 한 것이었다. 나는 왕십리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되도록 기도했다. 그래서 온마음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왕십리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갖도록 도와 주었다. 그런데 지금은 왕십리가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는가? 지금까지 그 동네에 산 사람들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갑부가 되었다. 이것은 결코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보여 주는 표적에 불과 하다.

이것은 다만 눈에 보이는 적은 싸인에 불과 하다. 그들이 영적으로 받은 축복은 얼마나 큰 부요한 자가 되었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은 온마음교회가 그 지역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하여 100개의 교육관을 만들자고 기도했을 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잘 나가는 회사의 부장 자리를 버리고 옥상 가 건물에 방을 얻어 회사를 시작 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을 마음에 모시고 많은 모험을 했다, 그래서 그는 요즈음 불경기에도 잘 나가는 중견 기업가가 되었다. 그는 물질적으로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아낌없이 내주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풍요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 말로다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봐와 같이 예수님이 보여 주신 기적으로의 열매만을 따먹고 신앙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결국 썩는 양식만을 위하여 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만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치는 영광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레이저 광선처럼 비추어 우리 자신이 온전히 변화되고 신적인 능력을 맛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고 만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레이저 광선 같은 예수님의 영광이 비쳐 올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해 낼 수 있고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참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함으로 정말로 복 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